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조선조 선현(先賢)들의 철학관 분석

The analysis of sages' philosophic view in Chosun dynasty household economic management

상명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두 경 자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 : Kyung -Ja, Doo

〈목 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및 대상
Ⅲ. 조선조 선현들의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저서 및 저자
Ⅳ.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서에 대한 철학적 접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ges' philosophic view of home economic management in Chosun dynasty.

The research method is to review literatures such as Jangbosanrimkongje, Songhosasal, Sasojul, Nehun, Geneusa, Mocminsimsa and Dasanmunsun.

The major points of this study were as,

1) Sages mastered that the primary principle of home economic management is to control the material desires.

2) Sages believed that home life management is required the lowest materials, and those materials enough are able to obtained through dilligence, frugality, thift and savings.

Therefore Sages advised us that each of us lives a dilligent, frugal, thrifty and saving life.

Ⅰ. 서 론

집은 인간의 공적생활인 일터로부터 돌아와 그 곳에서 자신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인간성을 지키는 장(長)이다(세키쿠치, 김외숙 외역, 1996). 그러나 가족의 인간성은 물질적 충족 없는 단순한 정신적 존재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가족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관한 가정내 문화를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자산으로 가구집기와 식량과 의복을 구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다.

독일어의 Haushalt(집)의 어원인 halten은 집에 대한 유기적 전체의 운영 즉 생활을 영위하고 내부의 불가결한 여러 기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집에 소속된 사람들을 생활공동체라는 유기체로 파악하여 집을 통솔지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스어의 Oikos는 Haus(家)를 의미하는데 이 말도 Ekonomic(경제)을 나타낸다. 이를 통합해 보면 집을 유지 통솔지도 하는데는 집의 경제가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가정은 물자에 관련된 가정경제의 안정없이는 유지될 수 없으며 가족의 인간성을 지키는 장으로서의 역할수행도 어렵게 된다. 그러나 끝없이 풍요로운 물질만이 가정경영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가족이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물질만이 필요하다 . 즉 정신적 존재와 물질의 충족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인간성이 발휘되므로 가족은 물질이 최적의 양이 되도록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즉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세키쿠치(1996)가 Economic를 경제의 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경제의 덕에는 절제가 수반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조선조 시대의 가정은 훼손되지 않은 인간성이 적절하게 유지된 사회이다. 이에는 차원 높은 조선조 선현들의 물질에 관한 철학이 큰 몫을 하였다. 이러한 조선조 선현들의 철학에는 물질전체를 관조하는 철학의 큰 줄기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가정경제 운영에 관한 조선조 선현들의 철학을 명료하게 표출시켜 현대에 참조하는 것은 해석학 이상의 철학적 견해가 필요하다. 현대의 과도한 물질추구와 물질에 대한 무절제는 인간의 정신적 존재와 물질과의 부조화를 일으켜 인간성을 상실케 하고 가정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하여는 물질에 대한 가정철학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본질을 다룬 관계로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지침이 될 수 있는 조선조 선현들의 저서를 분석함으로써 가정내 물질관리의 정수가 되는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을 추출해 내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및 대상

본 연구는 조선조 선현들의 저서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을 고찰하여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소혜황후의 내훈, 우암선생계녀서, 증보산림경제, 성호사설, 사소절, 목민심서, 다산문선 등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조선조 문헌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여사서(女四書 ;女戒, 女論語, 內訓, 女範)를 포함하나 여사서는 중국문헌으로서 조선조 선현들의 철학이 전연 내포되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Ⅲ. 조선조 선현들의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저서 및 저자

(1) 소혜왕후의 내훈(昭惠王后 內訓)

내훈(內訓)을 선술(選述)한 소혜왕후(昭惠王后; 1437-1504)는 좌의정 한확의 딸로 세조의 맏며느리가 되신 분이다. 이분은 남편 이장(李暲)이 일찍 서거하여 남편이 사후에 덕종(德宗)으로 추대되면서 소혜왕후로 명명되다가 소혜왕후의 차남이 성종에 등극하자 인수대비(仁粹大妃)가 되어 연산군 10년 68세로 승하하신 분이다. 인수대비라는 명칭이 우리에게 더 친근하나 소혜왕후 신분일 때 이 책이 간행되었으므로

소혜왕후의 내훈으로서 알려지게 되었다. 소혜왕후는 철저한 유교적 규범 속에서 성장하여 몸소 그 법도대로 살아가면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의 도(道)를 실천한 조선시대 귀족 규수의 전형이었다. 내훈은 소학, 열녀, 여교, 명감등에서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7장으로 구성하였고 간행 목적은 여자에게도 성인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한 것이었다. 나중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시골의 우매한 부녀자들까지도 읽도록 하였다. 이 책은 소학, 열녀, 명감을 단순히 발췌한 것만이 아니고 성현명가의 교훈과 40여명의 여성사례를 기술하면서 자신의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 책은 3권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1장 언행(言行)편에서는 여성의 사행(四行, 婦德, 婦言, 婦容, 婦功)을, 2장 효친(孝親)에서는 며느리의 도리를, 3장 혼례(婚禮)에서는 결혼의식에 관한 내용을, 4장 부부에서는 부부의 도리를, 5장 모의(母儀)에서는 어머니의 도리를, 6장 돈목(敦睦)에서는 형제의 화목에 관한 도리를, 7장 렴검(廉儉)에서는 검약과 검소의 도리를 다루었다.

(2) 우암선생계녀서(尤庵先生戒女書)

우암선생계녀서의 저자는 우암 송시열(宋時烈 ; 1607-1689)이다. 송시열은 선조때 태어나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서 효종, 현종, 숙종의 스승으로 왕의 자질과 역량을 닦고 기르는데 노력하였고 일반 제자의 수효만도 900여명에 이르는 교육자이다. 청빈검소하고 인자하고 엄숙하였으며 서자(庶子)를 인정하고 사별(死別)한 여자의 재혼 문제를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진보적인 여성관의 소유자이다.

저서로는 계자손시(戒子孫詩), 계자손서(戒子孫書), 계녀서(戒女書)등이다. 우암선생계녀서는 장녀를 권씨 집안으로 출가시키면서 적은 글로 추상적인 윤리나 교훈이라기 보다 일상생활과 철학으로 딸에게 타이르듯 세세하고 자상하게 기술하였다. 20장으로 구성된 우암선생계녀서의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3)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증보산림경제는 홍만선(洪萬選 ; 1643-1715)의 저서 산림경제를 조선조 영조 때의 유중림이 증보한 저서이다. 유중림은 기존해 있던 산림경제 16항목을 23항목으로 증보하고 항목의 내용도 보강하였다. 농업과 임업이 주였던 그 시대의 산촌과 농촌생활을 운영해 가는 지혜와 자신의 철학을 기술하였다. 증보산림경제는 다항목(卜居, 攝生, 牧養, 救急, 治藥 등)으로 되어있으나 이중 집안 가꾸기, 대 잇기, 아이 기르기 등의 항목이 번역되었다.

(4) 성호사설(星湖僿說)

성호사설의 저자 이익(李瀷; 1681-1763)은 조선영조때 실학자로 호가 성호, 본관은 여주이다. 당쟁에 실망하고 시골에 묻혀 성리학은 물론 서학에도 관심을 가지고 당시의 사회제도를 비판한 학자이다. 저서로는 성호문집, 곽우록, 성호사설 등이 있다. 성호사설은 작고 세세한 일이라는 저자의 겸손한 마음에서 붙인 이름이며 이익의 실학사상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저서이다. 내용은 천자문, 만물문, 인사문, 경사문, 시문문등 총 5문으로 되어있다.

〈표 1〉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내용	효친	부부도리	시부모공경	형제화목	친척화목	자녀교육	봉제사	손님접대	투기금지	언행	절제	근면	병간호	의식관리	노비관리	대차 貸借	매매	사교 무당불교	언행	맹모의교훈

(5) 목민심서(牧民心書)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丁若鏞 ; 1762-1836)은 조선 영·정조때의 실학자로 호는 다산(茶山), 본관은 나주이다. 다산은 정조가 승하하고 천주교박해에 연루되어 18년 동안 강진의 유배지에 있으면서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서학의 도입과 합리주의의 수용으로 정치의 개혁과 쇄신, 농민의 토지 균점, 노비제폐지 등을 주장하여 오늘날 실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저서로는 목민심서, 경세유포, 흠흠심서, 마과회통 등이며 목민심서와 여러 가지 그의 사상을 선집한 다산문선이 번역되어있다.

목민심서는 赴任, 律己, 奉公, 愛民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었고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관리가 지켜야 할 도리와 법도를 적은 책이다.

본 연구에서 참조한 것은 律己 6조의 절용(節用) 부분 등으로서 부정한 관리가 되지 않기 위한 가정경제 다스리는 법도를 다루고 있다.

(6) 사소절(士小節)

사소절의 저자 이덕무는 영조17년에 출생하여 정조 17년 53세로 사망한 이조 후기의 문장가이며 실학자로서 호는 아정이다. 사소절이란 예의와 덕을 갖추기 위해 기본적인 세세한 소절의 실천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절에 깊은 관심을 갖은 데서 생긴 명칭이다. 사소절은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편은 사전편(士典篇)으로서 남자의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의 법도와 예절지식을, 2편은 부의편(婦儀篇)으로서 부녀자의 가정경영 지식과 예의범절을, 3편은 동규편(童規篇)으로서 자녀교육을 다루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부의편을 구체적으로 보면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Ⅳ.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서에 대한 철학적 접근

1. 철학의 개념과 범위

철학(philosophy)의 어원은 희랍어의 Philosophia에 있다. 이 말은 知(sophia)에 대한 사랑(philos)을 뜻하는 합성어이다. 고로 철학은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며 철학의 정신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인생과 자연에 대한 사랑에 그 근원을 둔다. 인간이 자연속에서 갖가지 고난을 극복해가며 만족스러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생과 환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했으며,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유에 사유를 거듭하였다. 즉 인간은 처음에는 어떤 실용적 필요에 대해서 지식을 탐구하였고 실용의 지식을 얻기 위하여 사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준이 높은 모든 지식이 반드시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김태길, 1993). 여러 가지 과학이 독립된 단계로 분화하지 못했던 희랍에서는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철학이라 하였고 고대 중국에서도 문·사·철(文·史·哲)의 혼합을 철학이라 하였다. 철학은 세계 또는 인생의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철학은 반드시 현실과 유리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의 절실한 요청에 뿌리를 두고 자라온 인간정신의 한 산물인 것이다(김태길, 1993) 철학은 인간성 안에 뿌리를 두고 자라는 문화현상의 하나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하는 진지한 노력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한다. 어느 분야의 지식이든 간에 그것이 극도로 심화될 경우에는 자연히 철학과 직접 또는 간

〈표 2〉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8장
제목	성 행	언 어	복 식	동 지	교 육	인 륜	제 사	사물
내 용 (婦儀篇)	마음가짐 근검절약	순화되고 절제된 언어사용	검소하고 청결한 의식	행동의 유의사항	자녀교육	친척화목	정 성 청 결 예 의	가계재정

접적 관련을 갖게 된다.(엄정식, 1993)

철학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이론철학과 실천철학으로 구별할 수 있다.(김태길, 1993)

이론철학은 진(眞)이라는 가치 즉 지식의 획득을 목표로 삼는 철학을 의미하며 이에는 형이상학(metaphysics)과 인식론(epistemology)이 있다. 실천철학은 인생을 위한 소중한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며 윤리학(ethics), 미학(aesthetics)등이 이에 속한다.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미학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이상학은 존재의 본질에 관한 학문으로서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존재론이고 존재의 가장 존귀한 원리를 초자연적인 신(神)이라고 보는 것이다.(손봉호, 1993) 형이상학은 인간의 존재로부터 신의 존재까지도 다룬다. 인식론은 지식론이라고도 하며 초경험적 실재의 세계에 대한 인식문제에 관심을 둔다.(백중현, 1993)

즉 지식의 기원, 지식의 구조, 인식의 방법, 인식의 타당성 등을 연구하는 철학이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 발달된 인식론은 형이상학과 별개의 영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윤리학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실천철학의 가장 중요한 한 부문이며 도덕과 윤리, 법등의 규범을 다룬다. 윤리학은 다음 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어진다. 미학은 전반적으로 미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미적 사실의 중요한 근본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관적 원리와 객관적 사물위주의 학으로 분리되어 주관적 원리는 아름다움을 성립시키는 주체에, 객관적 사물은 아름다운 것 특히 예술적 작품에 그 가치를 둔다. 그리하여 이론철학이든 실천철학이든 결과적으로 참으로 철학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며 이 일관성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 실천적 차원에서는 강한 의지력을 표현한 것들이다.

2. 규범과 윤리학

인간은 누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름의 목적의 체계와 가치의 서열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의 체계도 가치의 서열도 갖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인간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회 규범이라는 윤리가 존재한다. 사회규범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삶의 지혜로서 인간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다. 행위의 규범을 삶의 지혜로 보는 것은 윤리의 근거를 인간성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회규범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사회규범이 인간행위를 평가하는 행위의 처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규범이 행위의 처방으로서의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행위자 또는 그의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행위의 지침을 밝혀줄 수 있어야 한다.(김태길 1993)

이 지침이 되는 원리는 이성 혹은 이성이 요구하는 공정성(公正性)이다. 그러면 이성 혹은 이성이 요구하는 공정성으로 이루어진 사회규범(혹은 윤리)은 기존하는 도덕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교육자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목표인 반면 윤리학은 기존의 규범 혹은 윤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새로운 행위의 규범으로 재 인정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것이다.(김태길, 1993) 윤리학에서 기존의 규범 혹은 윤리를 비판하기 위한 시비 또는 선악의 기준을 세우는데는 목적론(teleolgical theory)과 법칙론(deontological theory)이 있다.

목적론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시비와 선악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며 법칙론은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도리 즉 행위의 법칙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윤리학은 일상생활에서 실천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물론 실천에 관한 모든 문제가 윤리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의 수단이 되는 문제들은 윤리학이 아니며 목적의 선택 또는 목적의 수립에 관한 실천적 문제들이 윤리학의 대상이다.(황경식, 1993) 윤리학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목적에 관한 문제들 중에서도 인생과 인격 및 행위의 선 또는 옳음에 관한 것에만 국한된다. 규범의 학으로서의 윤리학은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인생 또는 인생의 주체적 단위로서의 인격 또는 인생 및 인격의 기

본적 구성요소로서의 행위에 관한 실천적 문제들을 다룬다. 윤리학의 방법에 관한 이론에는 형이상학적 윤리(metaphysical ethies), 자연주의적 윤리(naturalistic ethics), 직관론적 윤리(intuitional ethics)가 있다. 형이상학적 윤리는 형이상학의 지식을 근거로 인생의 목적 또는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이며 자연주의적 윤리설은 경험적 사실에 관한 지식을 근거로 인생의 목적 또는 행위의 법칙을 추리하는 것이고 직관론적 윤리는 다른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시비 또는 선악의 기준을 인식하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을 철학적 관점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들을 형이상학적 관점과 윤리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3.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서에 대한 철학적 접근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서들은 우리 의식의 바탕에서 오랫동안 행위자 또는 사회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행위의 지침이 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침으로서의 사회규범(혹은 윤리)을 불변하는 행위의 규범으로 재발견하기 위해 윤리학적인 시각으로 비판 검토하여 실천적 철학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즉 조선조 선현들의 가정경제운영에 대한 지침들에 대하여 윤리학의 비판기준인 목적론과 법칙론을 사용하여 접근하였다. 그리하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목적과 가정을 가진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려 하였고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서 속에서 형이상학의 지식과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인생의 목적 또는 물질 통제에 대한 행위의 법칙을 추리하려하였으며 규범서 속에 나타난 가정경제 운영법에 대한 시비를 직접적으로 인식하려 하였다.

4.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조선조 선현들의 철학관

조선조 선현들은 인간의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꿰뚫어보고 인간이 자족할 수 있는 물질 소유의 한계를 정하고 살아갈 때만이 인간성을 잃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일찍이 터득하였다. 즉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물질보다 존재의 본질가치를 더 우위의 관념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행복이 물질과 정신의 조화에서 얻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 신장이 아니라 물질적 신장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하여 물욕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한계효용이 되는 물질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하늘이 내린 인간의 도리를 따르는 길로 생각하였다. 우암선생계녀서의 19장 종요로운 경계(종요로운; 아주 긴요하다는 의미의 우리말)에서 「부귀재천(富貴在天)으로 사람의 귀천이나 빈부는 다 정하여진 분수에 달렸으니 남이 귀하게 되어 벼슬이 높거나 집이 부유하더라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사람은 온갖 처지가 다 뜻이 있고 좋은 것이니 마음을 편안히 가져라. 추워도 나만큼 못 입은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배가 고파도 나만큼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연히 부족한 데서 오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고 하였고 증보산림경제 농사와 누에치는 일에 힘쓰기에서는 「사람이 큰 부자가 되는 것은 천명(天命)이어서 아무리 밤낮으로 바라도 쉽게 얻어질 이치가 거의 없지만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정도는 사람의 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인생의 삶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자는 인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하므로 물욕에 대한 큰 욕망을 버리라는 가르침이다.

산림경제의 가난함 속에서 도를 즐기기에서는 「사람이 운명을 알지 못하고 구구한 자기의 사사로운 지혜로 하늘이 정한 분수를 어기려는 마음에서 밤낮 없이 분수 넘치는 일을 도모하고 찾으려 들면 얻지도 못하고 하늘을 어긴 재앙만 받는다. 분수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기미를 알고 나면 마음이 자연 한가하리」고 하면서 계속하여 「이 세상 모든 일이 원래 실패하기는 쉽고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역리적인 것은 많고 순리적인 것은 적게 마련이다. 일이 실패하고 역리적일수록 분수를 자키고 오히려 그것을 즐겨라」고 가르쳤다. 물욕의 달관을 권하는 가르침은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 편에서도

발견된다. 「돈 전(錢)자의 글자모양이 창 과(戈)자 두 개가 금(金)자 하나를 따르고 있다. 만일 금(金)만을 알고 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남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사리를 잘 지켜 창을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고 계속하여 「뜻밖의 횡재를 바라는 자는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인간은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때 순탄한 인생이 되어 가난의 경지까지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존재본질을 우위로 본 형이상학적 철학의 일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현들은 물욕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된다고 보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조선조 선현들은 인간존재의 본질을 간직할 정도의 한계적인 물질소유가 바람직하며 이러한 상태의 물질소유는 생활의 근검·절약·저축의 실천으로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다. 성호사설의 사치와 검소의 장에서 「재물이란 귀천을 막론하고 하루도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일시에 낭비하면 뒤에는 반드시 부족하고 귀한 자가 남용하면 천한 자가 반드시 부족하게 된다.」고 하여 부자나 귀한 자라 할 지라도 절약하려는 의식을 갖는 것이 도리임을 가르쳤다.

참으로 철학적인 관점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논리적 일관성을, 실천적 차원에서는 일관성과 강한 의지력이 표현된 것(김태길, 1993)이라고 볼 때 조선조 선현들은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에 대해 그 필요성을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으며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는 강한 의지력으로 설득하고 있다. 우선 조선조 선현들의 근검·절약·저축생활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의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목민심서의 제5장 절용(節用)에서는 「남을 지도하는 자는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지려는 자는 청렴해야하고 청렴하려는 자는 검약해야 한다. 절용이란 씀씀이를 절약한다는 뜻이다. 절약한다는 것은 한정을 두어 절제한다는 것이다. 한정을 두어 절제하는 데에는 반드시 법식(法式)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일관성 있고 원칙이 있는 절약생활이 가치가 있음을 가르쳤다. 이러한 원칙은 의·식· 주의 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목민심서의 5장 節用에서 「의복과 음식은 검소한 것으로서 법식을 삼는다. 조금만 법식을 넘어도 그 씀씀이에 절도가 없어져버린다. 의복은 성글고 검소한 것을 입도록 힘쓴다」하였고 소혜왕후의 내훈 제 7장 청렴과 검소에서는 「문중자의 의복은 검소하고 조촐하고 쓸데없는 장식이 없었다」하였고 우암선생계녀서 11장 재물을 준절하는 도리에서는 「제수 장만은 지나치게 하지 말고 의복음식은 보아가며 하고 허무하고 맹랑한 일을 일체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에 또한 사소절 부의편의 복식에서는 「다리(가발)를 땋아 머리위에 얹는 등 지금 부인들은 비록 마지못하여 시속을 따른다 하더라도 힘써 사치하기를 숭상하여서는 안된다 ……. 적은 돈을 써서 예법에 맞는 옷을 마련하여 입어라 세탁 후에도 때가 있거나 터진데 …… 등이 없도록 살펴라. 이는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을 드리게 하고자 함이다」고 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의 집안 다스리기에서는 「의복은 화사하고 사치할 것이 아니라 추위를 막을 뿐이고 음식은 달고 맛있게 할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면할 뿐이며 거처는 너무 편안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병들지 않을 정도면 족하다」고 하였고 성호사설의 惡衣惡食에서는 「공자가 말하기를 선비가 도에 뜻을 두면서 나쁜 옷과 나쁜 음식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족히 함께 말할 것도 없다」하였으며, 사소절 부의편에서는 「음식은 풍성하고 사치하게 진수성찬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호박국과 콩나물이라도 깨끗하고 조촐하면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조 선현들은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소유만을 가정생활의 원칙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식주생활은 정결하고 검소한 생활을 지침(指針)으로 삼고 그러한 생활을 하늘에 대한 인간의 도리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제1단계인 생리적인 욕구(Maslow 의해 1954년에 주장됨) 특히 好衣好食에 대한 인간의 욕구를 통제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의 통제력은 근검절약 저축생활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였다. 조선조 선현들은 의식주 중에서도 특히 食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여 자녀교육의 첫단계를 음식에 대한 절제로 삼았음이 다

음과 같은 내용에서 나타난다. 우암선생계녀서에서 「아들딸을 가르치는 데는 먼저 음식 탐내는 것을 금해야 한다. 음식을 탐내면 병이 생기고 이러한 탐욕으로 사치가 생기고 사치로 인하여 훔칠 마음이 생기고 훔칠 마음으로 인하여 사나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인간교육의 으뜸이 식탐에 대한 통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조선조 선현들은 의식주에 대한 인간의 절제력이 형성되면 가정경영에 필요한 재정은 근면, 검소, 절약, 저축 생활의 실천으로 충분히 확보된다는 생활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은 조선조 선현들의 4가지 즉 근면, 검소, 절약, 저축에 대한 지침내용을 분석해본다. 근면 · 검소 · 절약 · 저축의 4가지 정신중 근면을 으뜸으로 본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물질은 근면으로 충분히 얻어질 수 있으며 근면으로 물질이 얻어진 후에야 검소 절약 저축생활이 가치를 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 하겠다. 근면에 대하여 우암선생계녀서의 12장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에서 「한 나라의 제왕인 천자나 임금의 아내인 왕후도 놀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고 맹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을 안하고 어찌 부모를 섬기고 자손을 양육하겠는가.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는 일과 노비와 자식을 거느리는 일이 모두 가정주부에게 달려있는데 어느 겨를에 게으르고자 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가정주부가 부지런해야 그 집을 보존하게되고 게으르면 굶주림과 추위에 빠지니 …… 부디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위주로 하여라」고 하였고 사소절 제8권 사물에서는 「선비의 아내는 집안의 생계가 가난하고 궁핍하면 살아갈 도리를 마련하여 일을 해야 한다. 이는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부녀자의 수공의 한가지다」고 하여 부업을 장려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 "집안건사하기"에서는 「가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것은 군자에게 가능한 일이어서 보통 사람은 일정한 자산이 없으면 예의에 대한 마음까지도 없어지게 되므로 입고 벗기에 부족을 느끼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라」고 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사람이 열 살부터 일흔 살까지는 각기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고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근검하고 선량하면서 부자가 못 되는 자 누가 있겠는가」하였고 증보산림경제의 "농사와 누에치는 일에 힘쓰기"에서는 「까니가 간데 없을 정도로 가난한 것은 하늘이 게으름뱅이를 싫어하는 이치인 것이다. 1년 계획은 봄에 세우고 하루계획은 새벽에 세워야하니 농사철이 되면 남보다 먼저 서둘러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살 것을 권하고 있다. 근면으로 벌어들인 물질의 소비에 대한 지침으로는 검소 절약 저축을 들고 있다. 검소한 후에야 절약과 저축생활실천이 가능해지므로 검소는 소비생활지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검소한 생활태도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혼례, 상례, 제사 등의 절차도 되도록 검소하게 집안 형편에 맞추어서 할 뿐 항간에 떠도는 말에 마음이 동하여 지나치게 분수이상의 사치스런 짓을 함으로써 스스로 패망을 불러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였고 이어서 「먹는 것 입는 것을 아끼고 검소하게 하지 않는다면 재물이 어떻게 모일 것인가 사람이 배부르게 먹는 습관을 길게 들이고 나면 장과 위의 힘줄이 가로 늘어져서 어린아이 일지라도 한되나 밥을 먹게 된다 반찬은 돈만 많이 허비할 뿐 한번 목구멍에 넘어가면 그대로 버린 물건이 되나니 맛있는 반찬을 계속대기란 사실 어려운 일이다. 비단옷은 어버이에게만 입히고 자식들에게는 입히지 말아야 한다. 이는 재정을 절약하는 방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아끼는 방법도 되는 것이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중「반찬은 넘어가면 …… 그대로 버린 물건이 되나니」의 내용은 건강유지상 영양소를 골고루 취해야 한다고 보는 현대인의 감각에 다소 부합되지 않으나 그 자체의 내용보다는 지나친 호식(好食)을 검소생활의 가장 큰 장애로 보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 검소하게 하지 않는다면 재물이 어떻게 모일것이가」에서 검소한 생활이 근면으로 생긴 물질을 아끼는 중요한 방법이었음을 나타내준다. 소혜왕후의 내훈 제7장 청렴과 검소에서는 「검소한 생활에서 사치스런 생활로 돌아가기는 쉬어도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검소한 생활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루아침에 오늘과 달라진다면 집안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익힌 것이 이미 오래되어 갑

자기 검소한 생활을 할 수 없어서 반드시 절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였고 성호사설의 "나라의 흥망이 사치와 검소에 달렸다"에서「나라의 흥망은 모두 사치와 검박에 달려있다. 공자가 사치스러우면 겸손하지 못하고 검박하면 고루하다 고 하였는데, 겸손하지 못한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편이 낫다. 사치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없고 교만하면 남을 업신여기고 빼앗으며 물자사용에 무절제하다」고 하였다. 조선조 선현들은 검소를 인간이 따라야 할 순리(順理)로 보았고 사치를 인간이 배격해야 할 역리(逆理)로 보았다. 그리하여 인간이 순리가 아닌 역리를 취할 때 심성은 교만해지고 물욕이 강해져서 소비에 절제가 없어지며 결국에는 한 집안이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검소를 작게는 집안을, 크게는 나라를 흥하게 하는 생활의 기본법칙으로 본 것이다.

물자를 소비하고 관리하는 방법에서는 절약을 권장하고 빚을 경계시켰다. 우암선생계녀서의 11장 재물을 준절하는 도리에서는「가정을 잘 다스리는 법도는 재물을 절약하여 쓰는 것밖에 좋은 도리가 없다. 부질없는 허비를 하지 말고 쓸데는 아끼지 말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에는 추호도 허비하지 말아라」고 하여 물자를 절약하되 물자사용을 무조건 아끼기만 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사용해야 할 곳에는 아끼지 말고 사용할 것을 가르친다. 물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곳에 충분히 사용하기 위하여 절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절약과 인색을 구별하는 것으로서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도 잘 나타난다.「절약검소하는 것과 인색한 것과는 다르다. 가령 10할을 써야 할 자리에 7 , 8할을 쓰면 그것은 절약검소하는 것이고 1, 2할을 쓴다면 그것은 인색한 것이다」고 하였다.

절약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재물을 쓸데는 언제나 십분 아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계 있는 물건으로써 끝이 없는 비용을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하였고 우암선생계녀서의 11장 재물을 준절하는 도리에서는「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있고 쓰는 것은 무궁하니 알아서 쓰지 못하면 나중에는 지탱하지 못하고 자녀의 혼취를 못하여 상사람이 되는 사람도 많으니 두려운 일이다. 萬乘天子 (황제를 높여서 하는 말)라도 재물을 아끼고 준절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하물며 필부(匹夫)의 집이야 절용(節用)하지 아니하고 재물이 어디서 나올 것인가」하였고 목민심서 제5장에서는「한 물건이라도 버리지 않고서야 재물을 옳게 쓴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절약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며 절약만 하면 가정의 큰 행사인 자녀의 결혼비용이라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조선조 선현들은 절약은 권장해야할 덕목으로 본 반면 빚을 지는 생활은 기피해야 할 일로 인식하였다. 꾸어오는 빚에 대하여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집안이 망하는 원인을 보면 나랏돈과 사채를 빌려 쓰는 데서 비롯된다. 재물을 모으려면 먼저 재물이 없어지는 尾閭(새어 가는 틈)부터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하여도 공이 없게 된다」고 하였고 사소절 부의편 8장 事物(이런 일 저런 일)에서는「가장에게 알리지 않고 빚돈을 내어 사치하고 화려하게 사용하는 비용을 삼으면 낭비벽이 심한 부녀(浪婦)이다. 부인이 빚을 내고 꾸어 쓰기를 잘하는 것은 절약하지 않는데서 생기며 절약하지 않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하여 빚을 꾸어 쓰는 사람은 근검절약 저축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우쳐주고 있다. 우암선생계녀서의 16장 주고받는 도리에서는「남에게 꾸었거나 빚을 내었거든 다시 꾸어 쓸지라도 즉시 마련하여 갚도록 하라. 남의 것을 쓰고 즉시 갚지 않거나 좋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보다 추한 몰골이 어디 있겠는가, 꾸어 쓰지 않아도 견딜만 하거든 꾸어 쓰지마라 부질없이 꾸어 쓰기와 빚내기를 즐기다가는 갚을 때면 공것 같고 갚다보면 집이 자연히 가난해질 것이다」고 하여 빚내기는 될수록 삼가고 일단 꾸어 쓴 빚은 빨리 청산하도록 가르쳤다. 빚을 주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소절의 8장 사물에서「변리돈을 늘리는 일은 현숙한 부인의 일이 아니다. 만약 각속한 때를 어기면 번거롭고 가혹하게 독촉하고 소송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형제나 인척, 친척과 돈 거래를 하면 화목을 잃을 것이다」고 하였고

우암선생계녀서 16장 주고 받는 도리에서는 「꾸어 주었으면 재촉하지 말고 쓰기가 아쉽거든 형편을 보아가며 재촉하되 보기 싫은 행동은 하지 마라. 꾸어 쓰기는 해도 빚을 주는 일은 하지 마라. 빚을 주게 되면 자연히 원망하는 일이 생겨나고 재액과 환난을 입을 것이다」고 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도 「이자놀이를 좋아하면 적게는 많은 원한을 사게 되고 크게는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남에게 이자 돈을 받는 것은 올바른 재산증식의 방법이나 인륜이 아니며 빚을 내다 쓰는 것은 재산을 축내가는 경계해야 될 일임을 알리고 있다. 그러나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빚을 주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도리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재산증식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표현한다. 「자공(공자의 제자)과 범려(춘추시대 월나라의 공신)는 다 현인이요, 군자였지만 재산 늘리기를 열심히 하여 그 이름이 후세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후세에 그 일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었다. 재산을 늘려도 도리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야비한 일이겠는가 이욕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에게 이익이 있으면 남을 해치는 일을 능사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자공과 범려가 현인이고 군자였기 때문에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면 보통사람은 이욕이 도리보다 앞설 수 있으므로 이자놀이는 피해야 할 일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저축 생활의 실천에 대하여는 근면으로 벌어들인 물자를 검소한 태도로 아껴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을 저축해 가는 일을 올바른 재산증식의 방법으로 보았다.

우암선생계녀서의 11장 재물을 준절하는 도리에서는 「항상 나머지를 두어 질병시 약값이나 장례대비나 빚을 갚도록 하고 쓸데가 없으면 자손을 위하여 저축하여라」하였고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하나에서 열이 되게 하고 열에서 백이 되게 하여 비록 천이고 만까지라도 그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한 푼의 돈, 한 톨의 쌀이라도 쓸데없는 곳에다 헛되이 버려서는 안된다」고 하여 한꺼번에 큰돈이나 많은 쌀을 저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소의 생활에서 작은 나머지에 불과한 한푼의 돈, 한줌의 쌀 등을 계속 모아서 큰 재물을 만들어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과 일치하는 것으로 작은 물질의 저축이 큰 재산으로 증가될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저축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조선조 선현들은 예산을 짜고 가계부를 기록할 것을 권하고 있다.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저축예산에 대하여 「수확한 것에서 제사, 종자, 농사지을 동안 먹을 곡식을 제하고 그 나머지를 열 몫으로 나눈 다음 세몫은 흉년이나 뜻밖의 재난에 대비하여 두고 나머지 일곱 몫은 12달로 쪼개어 한달 쓸 것을 계획하고 한달 쓸 것은 다시 30등분하여 하루에 그 30분의 1을 써나가되 다 써버리지 말고 남기어라. 남는 것은 모아두었다가 겨울채비와 여름채비의 옷가지를 마련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라. 다음날 쓸 물건을 앞당겨 쓰는 것은 망할 징조이다」고 하였다. 위 내용중 특히 「다음날 쓸 물건을 앞당겨 쓰는 것은 망할 징조이다」고 본 것은 가정경제에서 봉급을 가불하여 사용하거나 외상구매를 즐기는 생활이 가장 위태로운 생활임을 말해준다. 1년 동안의 가용 수확물의 10분의 3을 저축하고 다시 하루 사용할 물자 중 3할을 저축할 것을 가르친 것은 월수입의 8.2 ~ 12.2% 의 저축률을 (이기춘, 1982 pp 115-117) 이상(理想)적이라고 보는 오늘날의 가정저축율 보다 3배 이상 되는 것으로서 저축을 크게 장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계부 기록에 대하여는 사소절 8장 사물에서「돈이나 곡식을 내고 들일 는 반드시 책에 기록하여 가장에게 보여서 빠진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돈과 곡식과 피륙을 마련하고 헤아릴 줄 모르는 것은 집안을 망칠 징조이다」고 하였고 증보산림경제의 가정경제 다스리기에서는 「부인이 절약할 줄을 알고 써서 남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크게 일어날 징조이며 그렇지 못하면 남편이 그때그때 용도에 따라 식량이나 비단을 들여보내고 기록하였다가 참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여 물자를 낭비하지 않고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선조 선현들은 정

신력으로 물질에 대한 욕망을 통제시키고 근검·절약·저축생활을 실천하게 하여 어려움 없이 자족하며 가정경제를 운영해 가도록 이끌었던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조선조 가정경제운영에 대한 규범들을 철학적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철학인 형이상학과 실천철학의 핵심이 되는 윤리학으로 접근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규범서들은 단순한 교훈적 윤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수립에 관한 실천적 문제들을 다룬 실천철학이며 아울러 인간존재의 본질을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전개한 이론철학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들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물질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천적 차원에서는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행위의 지침들을 강한 의지력으로 표출하고 있는 참으로 철학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규범들은 철학적 기초 위에서 형성되었다. 즉 조선조 선현들은 주자학에 바탕을 둔 유교 윤리적 관점에서 혹은 주자학과 유교윤리를 기본으로 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근본과 삶을 깊이 성찰하고 사고하였으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인생과 인격, 행위의 선 또는 옳음 등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들 속에는 부분적으로 구시대적 표현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언어들일 뿐 인간의 기본적인 진리를 다룬 철학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예컨대 증보산림경제의 「농사와 누에치기에 힘쓰기」에서 누에치기를 권장한 것이라든가 우암선생계녀서의 「일을 부지런히 하는 도리」에서 길쌈을 권장한 것 그리고 사소절의 사물에서 길쌈과 누에치기를 부녀자의 으뜸가는 수공이라고 본 것은 길쌈과 누에치기라는 일이 현대의 직업종류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으나 그 지침의 근본 목적은 일을 열심히 하고 생계가 어려울 땐 부업도 하여 가정경제를 궁핍하지 않게 운영해 가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근본 진리를 다루었기 때문에 조선조 선현들의 규범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속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우리의식의 밑바탕에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조선조 선현들은 가정경제를 인간이 가정을 경영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물질로 보고 이러한 물질소유는 정신과의 조화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즉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생활에 한계 효용적 가치에 해당되는 물질만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물질에 만족할 수 있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는 물질에 대한 욕망을 통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다고 보았다. 부귀재천 ……, 부자는 천명(天命)이니…… 등의 표현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의 은혜에 좌우되는 것이니 큰 물질에 대한 무한한 욕망은 버리라는 것이다. 이는 가난을 무기력하게 수용하는 운명론자가 되라는 표현이 아니고 물욕에 지배되어 부정이나 부패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큰 부자가 되려는 것은 인간성에 어긋나는 부질없는 행동이니 이러한 행동으로 큰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제한하라는 의미이다.

그 대신 작은 부자 즉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성을 보존시키는 정도의 물질 예컨대 남에게 빚을 얻어 쓰지 않고 의식주를 조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수준은 근면과 검소, 절약과 저축의 생활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물질적 욕망의 통제, 근면, 검소, 절약, 저축생활의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안의 가족들은 인간다운 인간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없으므로 행복할 수 없게 되어 결국은 하늘의 재앙을 받게 된다고 본 것이다.

조선조 선현들이 자족할 수 있는 최저의 가정경제 생활에 대하여 의복은 성글고 검소하며(목민심서), 추위를 면하는 정도(증보산림경제)면 되고 음식은 굶주림을 면하고 병이 나지 않을 정도(증보산림경제)로 본 것은 물질욕망에 대한 통제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들이다.

현대가정의 생활수준은 조선조 선현들이 본 최저생활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높지만 현대인의 거의 모두가 상대적 빈곤 감에 허덕이는 것은 물질통제 및 근면·검소·절약·저축생활의 당위성에 대한 철학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가정생활의 각종사치와

과소비 특히 관혼상제에 관련된 과소비 등은 일찍이 조선조 선현들이 경계시켰던 것들이다. 「혼인을 할 때는 그 집안의 행실과 가풍을 보아서 하되 그 가난하고 부유한 것은 보지 마라. 며느리를 나만 못한데서 얻으면 그녀가 와서 조심하게 되고 딸자식을 내 집보다 나은 데로 보내면 그녀가 조심하게 된다(우암선생계녀서의 종요로운 경계)」고 하여 가정경제력이 성혼(成婚)의 관건이 될 수 없음을 가르쳤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의 가족들이 가정경제운영의 초점을 물질에만 계속적으로 맞추어 갈 때 인간성 상실이라는 재앙이 필연적으로 올 수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물질이 풍요해질수록 더욱더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드는 현대인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최선의 대안은 조선조 선현들의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을 배우며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조선조 선현들의 지침이 어느 정도 우리 의식속에 내재해 있는가를 알아보고 의식과 실제의 행동간의 불일치의 정도를 파악하여 조선조 선현들의 가정경제 운영에 대한 철학을 우리의식속에 강력하게 재충전시키는 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1) 김태길, 임정식, 손봉호, 백중현 등(1993), 철학강의, 철학과 현실사.
2) 금장태(1989), 한국유교의 이해, 민족문화사
3) 손직수(1982),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성균관대 출판부.
4) 소혜왕후(1994), 내훈계녀서, 명문당.
5) 세키쿠치후사외(김외숙, 장용선 공역), 가정철학, 교문사, 1996.
6) 이기춘, 가정경제학(증정), 교문사, 1982.
7) 이덕무(1993), 사소절, 명문당
8) 우암(송시열) (1994), 내훈계녀서, 명문당.
9) 이익(1997),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
10) 유중림(1997), 증보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11) 정약용(1993), 목민심서, 창작과 비평사.
_____(1997), 다산문선, 민족문화추진회.